

목포시, 위생해충 박멸위해 방역소독

하천·공원·방역취약지 등 300여개소 대상

매일 2회 집중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병행 실시

목포시 보건소는 여름철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방역소독 활동을 대폭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전문 방역반 10개조(37명)를 편성해 관내 하천, 공원지역, 방역취약지 등 300여개소를 매일 2회 집중 소독 관리하며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방역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 장비를 보강해 구간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새벽

과 야간 시간대에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 중이다.

보건소는 장마가 끝나 후 기온 상승에 따라 위생해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앞으로 동 전담 방역인력 180여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모기서식처를 신고하면 신속히 방역 소독을 실시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모기의 활동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집 주변 하수구와 공터는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잡초나 웅덩이에 고인물을 제거하는 등 자발적으로

환경을 정비해 모기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 ‘하의~도초’ 카페리어객선 취항

“세 번째 여객선공영체로 해상교통 이동편의 증대”

신안군은 7월 24일부터 하의면 당부를 기점으로 능산도와 대야도를 경유하여 도초면 시목을 운항하는 정기 카페리어객선이 취항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도~자은 간 슬로시티, 송도~병풍 간 슬로시티2호에 이어 세 번째 여객선공영체 항로가 탄생되었다.

이번 하의~도초간을 신규 운항하는 슬로시티3호는 신안군에서 직접 매입한 선박으로 여객정원 159명, 승용차량 17대의 수송능력을 갖춘 130톤급의 차도선형여객선이며, 운항시간은 1일4회 왕복운항, 편도 약 40분이 소요된다.

여객요금은 1,000원, 승용차 기준운임은 2,000원 연간운임비

는 군비 약 8억여원이 소요된다. 그동안 하의도와 도초도는 해상 9km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으나 이동을 위해서는 목포를 경유하여 다른 여객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신의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등 60여명이 도초도와 비금도로 오는 29일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여객선공영체를 확대하여 운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여객선공영체 시범지구 선정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암군, 환경친화형 녹색축산시책사업 추진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

영암군은 가축의 적정 사육 밀도, 축사경관, 약취관리 준수 등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장려금을 농가당 4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할 농가는 인증 신청 전 친환경 사업자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교육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조성 및 지정을 위하여 올해 18개소에 180백만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조성에 필요한 축사 주변 경관 조성, 가축 운동장 조성, 약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목표량은 38호이며, 지정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지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를 군비로 1억원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목표 35호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망운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친 후 교육장에 입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에 임했다.

이날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준수사항, 폭염대비 안전수칙,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이 20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친환경 살균 소독수 활용을 통한 마을경로당 방역소독과 마스크 쓰기 실천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망운면(면장 조영희)은 지난 22일 망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거

목포시, 코로나 19로 지방채 발행 불가피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 200억원 규모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긴급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공원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라는 사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 211억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원을 재정사업으로 투입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진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조 1,000억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1.5%대

저리의 이자로 지방채를 확대 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공원일몰제 관련사업은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대응에 거액의 시비를 긴급 투입하게 된 시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보상비(100억원)와 현재 98% 가량 사용된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비(100억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미래 이끌 인재 양성

영광군과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20일부터 이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금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2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 관련 이론·기능·실습교육을 9월 25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은 연평

군 25%이상 성장하여 5년 내 약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군 관내 e-모빌리티 기업에조차도 관련 취업자를 구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향후, 지식산업센터, 관련기업 입주로 인해, 전문 인력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